<10.16873/tkl.2015. 69. 223>
한국문학논총 제69집(2015. 4) 223~256쪽

이창동 소설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 연구
- 「소지」와 「친기」를 중심으로

최 영 자*

차 례

1. 서론
2. 아버지 담론 이끌어내기 방식으로서의 제의(祭儀)적 진술과 극적 진술
3. 재구성된 텍스트의 분석과 의미 조명
4. 아버지의 죽음을 위한 제의 의식과 속죄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이창동의 「소지」와 「친기」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작품은 증상의 원인인 아버지를 담론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가족서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소지」는 어느날 불현듯 그들 삶의 균열을 깨뜨리는 죽은 아버지의 귀환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각인하고 당대 사건의 본질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한다. 사상문제로 행불된 남편으로 인해 폭도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신경증자로 전락한 '그녀'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로 인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성국'과 '성호', 경찰인 남편으로 인해 이들 가족을 불행하

* 강원대학교 강사

게 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신경증자가 된 '시누이' 등의 관점을 통해 각인된 죽은 아비의 위력을 표면화한다. 여기서 '시누이'와 '그녀'는 분석자의 위치에서 '제의'의식의 주체가 됨으로써 '성국'과 '성호'로 하여금 죽은 아비와 관계를 청산하는 반영적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제의의식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죄의식, 연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주체 정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반면 「친기」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산 현재적 아버지의 고백적 담론을 통해 아버지로 비롯되는 가족서사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화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친 제삿날 35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덕수'의 진술은 사건의 주체인 아버지를 비롯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증언과 고백의 극적 진술로 이끈다. 아버지의 고백은 이데올로기적 오인에 사로잡혀 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통한하는 것이며,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과의 청산을 통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아버지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에 연유된 사람들을 분석자와 피분석자의 위치에 놓고 당대 사건을 객관적 관점에서 증언하고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발점을 형성한다.

주제어 : 분석자, 죽은 아비, 귀환, 임종, 제의, 고백, 가족서사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이창동의 소설 「燒紙」와 「親忌」[1]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을 규명하는 것이다. '가족분석담론'은 정신분석학적 의미와 상통한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에 의한 정신분석학은 분석자의 입장에서

1) 「소지」는 『실천문학』, 「친기」는 『창작과 비평』에 1985년 각각 발표된 소설이다.

환자의 무의식적 담론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분석가는 환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맡는다. 프로이트는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내재된 다양한 은폐기억들을 들추어낸다. 유아기 신경증 사례를 다룬 「쥐인간」이나 「늑대인간」 그리고 「다섯 살배기 꼬마 한스의 공포증 분석」들, 또 편집증 환자의 사례를 다룬 「편집증 환자 슈레버」 그 외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사례에 나타난 환자들의 증상은 유아기의 은폐기억과 연관돼 있고 또 그것이 대부분 가족구성원과 연관된다. 그중에서 '아버지'와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그러한 경험 흔적들은 파괴되지 않고 무의식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언젠가 언어로 표출되는데 이것이 신경증인 셈이다. 분석가는 분석과정에서 환자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자신의 증상을 드러낸다. 이때 분석가는 환자들의 언어를 텍스트화 함으로써 분석하는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프로이트는 '분석 작업'[2]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언어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기타 관여된 사람들을 역추적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적 의미의 텍스트가 탄생하고,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의 반복이다라는 원리가 적용된다. 이때 분석가는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억하는 발생의 원인인 사건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서술되고 있음을 밝혀낸다. 프로이트는 위의 많은 사례들이 환자들에 의해 대부분 날조되거나 틀린 기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낸다. 이러한 텍스트 과정을 통해 환자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정신분석의 근본적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3] 이로 볼 때 문학텍스트는 서술자가 분석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인

2) Sigmund Freud(1976b), 『꼬마 한스와 도라』, 김재혁・권세훈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193~199쪽 참조.

3) Sigmund Freud(1976b), 『꼬마 한스와 도라』, 위의 책 ; 『늑대인간』,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옮김, 열리책들, 1997;2003. [재간];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

물들의 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플롯을 전개하고 어떤 귀결점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이때 가면적 서술자인 작가의 의도가 서술자나 인물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이트에 있어 무의식의 본질은 완전히 분석될 수 없고 최초의 사건은 언제나 미지수로 남듯이, 작가 또한 검열자나 분석자를 따돌리기 위해 묘사나 상징으로 위장하지만 근원적 의미에는 언제나 '빗금(initial line)'[4]이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는 「빌헬음 옌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이나 「레오나르드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을 통하여 작가의 몽상을 분석한 바 있다.[5]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지」와 「친기」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발화를 정신분석적 텍스트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가족분석담론의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1983년도 「戰利」(『동아일보』)로 문단에 등단한 이창동은 이후 「燒紙」(1985) 「親忌」(1985) 「戰利」(1983) 등 분단이나 사상과 관련된 작품을 발표하였다. 광주항쟁으로 일컬어지는 80년대의 암울한 상황은 80년대 그의 소설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간의 불화나 갈등 양상으로 표면화된다. 이희승은 80년대를 '부권위기' 혹은 '남성주체의 위기의식'이 '피학적 자기노출'[6]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6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는 현상을 조사한 논문도 있다.[7] 그런가하면 80년대는 노동문학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거대담론에서 이탈하여 노동현장을 맴돌거나 소시민적 삶에 안착하는 리얼리즘적 담론이 대두했던 시

간]. 이상 전반적인 내용들을 참조하였음.

4)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ale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Alan Sherida. trans, 1978, New York: Norton.Lacan, p.20.

5)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학』,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6) 이희승, 「80년대 민주화운동 소재 영화의 민족주의와 탈식민적 욕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08. 163~164쪽. 참조.

7) 박영주 · 최정기 · 정호기, 「1960~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민주주의와 인권」14,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4. 77쪽 참조.

기이기도 하다.[8] 이러한 의미에서 85년에 『실천문학』과 『창작과 비평』에 각각 발표한 이창동의 「소지」 「친기」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의기소침한 가부장의 모습이나 그로 인해 불화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모습은 80년대 민중들의 삶과 닮아 있다.[9] 90년대 이후 이창동은 「초록물고기」(1997) 「박하사탕」(1999) 「밀양」(2007) 등과 같은 영화를 통하여 이 같은 80년대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여 그에 대해 관객들로 하여금 성찰의 순간을 갖도록 요구한다."[10]

지금까지 이창동에 대한 연구는 영화와 서사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것이 대다수다.[11] 일부 연구논문에서 「소지」 「친기」에 나타나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인물들의 성향이 암울한 현실에 맞서 대립하기보다는 "도피지향적"[12]이라는 언급하고 있다. 이창동의 80년대 소설들은 불온한 사상이나 빨갱이에 연루된 아버지로 인해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 가족구성원들이 등장한다. 그런 아버지로 인해 남은

8)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80년대 노동문학의 전개과정」, 『원우론집』17, 1990. 연대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신두원, 「1980년대 문학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9) 허아름, 「이창동 소설 연구 : 리얼리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주진숙, 「한국현대사회에 대한 기획으로서 이창동의 영화들」, 『영상예술학회』11권, 영상예술연구, 2007, 105쪽.

11) 강승묵, 「영화의 영상 재현을 통한 역사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주진숙, 앞의 논문; 최병학, 「이창동 영화를 중심으로 본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연구』2, 한국교양교육학회, 2008; 이현승・송정아, 「이창동 작가론 : 윤리를 창조하는 '반복' 으로서의 영화 만들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 한국콘텐츠학회, 2012, ; 서인숙, 「이창동 영화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 한국콘텐츠학회, 2013 ; 심은진, 「영화와 문학 ; 이미지의 시간성: 바르트와 들뢰즈의 이미지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창동의 「박하사탕」」, 『불어문화권연구』14,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2004 ; 김형술, 「'영화로 읽는 세상' 판타지는 어떻게 일상에 스며드는가 - 이창동의 영화 『오아시스』」, 『관점21』13, 게릴라. 2002.

12) 최지호, 「이창동 작품의 서사학적 연구-소설과 영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솔논단』15, 도설어문학회, 2001, 88쪽.

가족구성원들은 다양한 신경증적증후군을 안고 살아간다.

「소지」의 경우 사상문제로 행불된 아버지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감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친기」는 육이오 때 잠시 빨갱이에 연루되는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양분되고 피폐한 삶을 사는 가족이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서 자식들은 고아 아닌 고아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아버지'라는 존재의 불안정함을 경험한다. 존재이면서 비존재이기도 한 아버지가 어느날 그들 삶에 예고 없이 등장하고, 그런 유령화된 아버지의 귀환은 그들 삶의 균열을 깨고 흐트러뜨린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담론의 핵심에 있다. 또한 권력담론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폭력이나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소설에는 주로 반공이데올기에 연루된 아버지의 행불이나 칩거로 인해 가족간이 불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창동의 소설은 오랜 세월 그들 삶을 옥죄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실마리를 '죽은 아버지'를 피분석자로 놓은 가족구성원들의 분석담론을 통해 제시한다. 이창동의 소설에서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로 인해 상징적 거세를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아버지를 부정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까지 표면화된다. 이는 자식들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혹은 아버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저항의 한 형식으로 표면화된다. 아비 부재는 아비 부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로 의미화 됨으로써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근거를 남긴다. 여기에는 아비 부재의 주체인 아버지의 진실이나 의미는 배재된 채 자식들은 그들 나름대로 왜곡된 아버지의 형상을 창조한다.

프로이트는 1919년 「매맞는 아이」라는 논문에서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환자의 대부분은 '아이가 매를 맞는(어떤 아이가 맞고 있어요)' 가학적 환상에 빠진다고 하고 있다.[13] 환자들은 대개 5,6세 이전에 이런

13) Sigmund Freud(1976b). 「매 맞는 아이,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앞의 책, 137~

경험을 한다.[14]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쾌락이 수반되는 환상의 단계가 전개된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리고 있어요'라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를 대체하는 환상에 빠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매 맞고 있는 타자를 자신으로 변모시키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맞고 있어요.'라고 함으로써,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억압받은 기억을 환기한다.[15] 세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자신'을 '나는 아마 구경하고 있어요'라는 의미로 치환한다. 이 세 가지의 환상단계에서 때리거나 처벌과 모욕을 주는 사람은 예외없이 '아버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오이디푸스 서사를 중심으로 한 담론 텍스트(Discourse Text)의 변형을 보여준다.[16] 여기서 담론 텍스트는 '그 아이—나—구경'으로 재구성(Reconstitution)된다는 사실이다.[17] 여기에는 어버이 콤플렉스(Elternkomplex)로 인한 불안이 작용한다.[18]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분석의 과정에서 언제나 그 의미가 재구성되는 피분석자로 존재한다.[19]

부모나 교사에 의해 한 아이가 맞고 있는 장면을 본 아이는 '그 애'를 '나'로 동일화하는 담론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매 맞고 있는 아이를 자신으로 변모시키거나 혹은 타자화하면서 아버지에게 맞고 싶은 피학적 욕망과 가학적 욕망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유아기에서의 이 같은 환상 시나리오는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데올로기적 원천으로 작용한다. 근친상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변형적 시나리오는 아버지와의 동일화적 욕망의 원

170쪽 참조.

14) 위의 책, 138쪽 참조.

15) 위의 책, 151쪽 참조.

16) 위의 책, 152쪽 참조.

17) 위의 책, 152쪽 참조.

18) 위의 글, 145~147쪽 참조; Julia Kristeva,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유복렬 옮김, 푸른숲, 2002, 166쪽.

19) Sigmund Freud,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참조.

천인 동시에 죄의식과 애증에 기반한 양가성(Ambivalenz)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이면에는 주체의 아버지를 동경하는 동성애적 욕망과 동시에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살해 욕망이 내포돼 있다.[20] 프로이트는 이 같은 환상의 단계에서 환자가 동성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 아버지가 집안에서 미미한 존재로 각인된 모욕적인 동성애적 외상과 연관돼 있음을 밝혀낸다.[21] 이처럼 유아기 단계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의해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주체는 계통발생학적으로 아버지의 명령과 금기와 복종이 무의식적 또한 양심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나아가 양심의 요구와 실재적 수행 사이의 갈등은 죄의식으로 경험된다.[22] 여기서 주체는 그 같은 구조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신분을 탈색하는 가족로맨스적 환상을 꿈꾸기도 한다. 그래서 나름 시나리오를 구상하는데, 이는 자아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근거한다.

주체의 이 같은 욕망은 이데올로기적 욕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아가 잔혹한 역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주체는 자기 부정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을 통해 아버지와의 동일화 혹은 탈피를 도모하는 일종의 히스테리적 증세를 표출한다. 신경증적 증상의 대부분은 이 같은 가족로맨스적 담론이 근거인 경우가 많다.[23] 흔히 오이디푸스적 요소를 배제하고 소설이 형성되기 힘들다고 할 만큼, 소설방식의 한 방편으로서 오이디푸스에 근거한 가족로맨스적 담론은 필연적인 것이다.[24] 가족로맨스는 흔히 '업둥이형(enfant trouve) 로맨스'와 '사생아형(batard) 로맨스'로 구분된다. 전자는 낭만적 환상에 근거한 것으로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

20) Sigmund Freud, 위의 책, 178쪽; Julia Kristeva, 위의 책, 170쪽 참조.
21) Sigmund Freud, 179쪽 참조.
22) Sigmund Freud(1976b),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3, 379쪽.
23) 위의 책, 200쪽 참조.
24) Marthe Robert, 김치수・이윤옥 옮김, 『소설의 기원, 기원의 소설』, 문학과 지성사, 1999, 69~71쪽 참조.

하고 일종의 도피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반해 후자는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다.[25] 그 이면에는 동성애적 원천으로서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증오라는 양가성이 작용한다. 오이디푸스에 근거한 이 같은 메커니즘은 이데올로기적 원천으로 소급적용 되면서 사회적 의미로 확대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의미는 사후적, 즉 재구성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환상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 아버지 담론 이끌어내기 방식으로서의 제의(祭儀)적 진술과 극적 진술

이창동의 「소지」와 「친기」는 같은 연도에 발표되고 '아버지의 죽음'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행불 처리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는 제의(祭儀)형식을 통해 아버지로 인해 발생된 가족구성원들간의 불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지」와 달리, 「친기」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자식들의 극화된 서술방식을 통해 아버지와의 갈등과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자 한다. 전자는 가족구성원의 외부에 있는 '시누이'와 '그녀'가 분석자의 위치에서 '제의' 형식을 통해 과거를 반추하는 분석담론으로 전개된다. 반면 후자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화자 '나'가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배다른 형 '덕수'와 '누나'를 피분석자의 위치에 놓고 피의자인 아버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극적 진술로 전개된다. 여기서 '아버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전자의 경우 유령화된 아버지를 피분석자의 위치에 놓고 가족들이 분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진술을 재구성하고 분석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피의자이면서 임종 직전인 아버지의 현재적 진술을 바탕으로, 가족구성

25) 위의 책, 70쪽 참조.

원 모두가 분석자이자 피분석자로서 과거 성장과정에서의 맹점이나 오류 담론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를 통해 지금껏 피의자로서 존재해 있던 아버지에 대한 조명이 엇갈린다.

먼저, 「소지」는 육이오 때 '사상'문제로 행불된 남편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영위해온 '그녀'의 관점으로 가족사가 전개된다. '그녀'의 관점이지만 서술 과정에서 '시누이'의 역할 비중이 트다. '경찰인 남편을 둔 시누이는 '오빠'를 끌려가게 했다는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귀신을 보는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표면화된다. 반면 '그녀'는 증언적 화자로 등장한다. '그녀'는 남편의 생사를 안다는 남자들에게 끌려가 배다른 형제를 낳는다. 이후 '그녀'는 폭도들에게 당한 후유증과 떼죽음 당했다는 남편에 대한 풍문으로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신경증가 된다. 그 같은 폭력에 대한 체험은 '그녀'에게 이빨통증이라는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표면화되면서 삼십여 년 간 지속된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 '그녀'와 '누이'한테 등장한다. 그런가하면 '그녀'의 아들 '성국'과 '성호' 또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란 존재의 영향을 받는다. '성국'은 경찰시험에 사상문제로 떨어지고, '성호'는 사상운동에 관여한다. 등의 이유로 '시누이'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소급효과를 발휘하는 성국 아버지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소지(燒紙)'를 제의한다. 이러한 시누이의 제의(祭儀)에 대한 제안은 오랫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올캐와 조카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아버지'와의 부채를 청산하고 동시에 넋을 위로하자는 의미다.[26] '시누이'의 시야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유령화된 아버지의 귀환은 그 자체로 증상의 출현이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시누이'와 '그녀'는 분석자의 위치에서 '제의' 형식의 주체가 됨으로써 올캐와 '성국'과 '성호'로 하여금 죽은 아비와 관계를 청산하는 반영적 진술을 이끌어

26) 죽은 아버지의 귀환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상징적 채무를 해결해주는 일이다. Slavoj Žižek,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 · 유재희 옮김, 시각과 언어, 1995, 63쪽 참조.

내는 데 일조한다.

반면, 육이오 때 잠시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까닭에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이후 사업실패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가 등장하는 「親忌」역시 현실적으로 거세된 아버지와 그럼에도 소급되고 있는 아버지의 규율부터 놓여나고 싶은 자식들의 염원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친기」는 말 그대로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드러낸다. 육이오 때 '종만(아버지)'이 잠시 빨갱이에 연루된 것이 그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식들을 고아 아닌 고아로 살게하고 그 외의 가족들을 불신과 의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평생 고아로 살아온 '덕수'가 모친 제삿날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옴으로써 사건이 발단된다. '덕수'의 진술은 사실 아버지에 대한 증언과 취조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화법으로 서술되는 '덕수'의 진술은 때로는 분석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피분석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진술담론을 이끌어낸다. 더불어 '덕수'와 배다른 형제자매인 '나'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 역시 분석자이면서 피분석자의 위치에서 극화된 진술담론을 펼친다. 이 같은 극화된 진술방식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당대를 객관적으로 조응하게 하는 반영적 관점으로 몰아간다.

이에 서술자인 '나'는 아비 부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배다른 '형'과 아버지의 입장을 변호하는 '누나'와의 극화된 진술을 통해 기억담론의 오류를 바로잡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또한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 역시 당대를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분석담론의 주체로 이끌어낸다. 그로 인해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청산에 일조한다. 이처럼 「친기」는 모친 제삿날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온 '덕수'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는 물론 가족구성원 전체를 증언과 고백 형식으로 이끈다. 더불어 '덕수'는 물론 전체구성원이 왜곡해왔던 아버지의 역사와 세계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로 볼 때 두 작품에서 이루어지는 죽은 아비에 대한 분석담론은 증

상의 원인인 아버지를 진술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가족서사의 공백을 메우게 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주체이자 피의자로서의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더불어 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치유서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반복으로 인해 끊임없이 등장하는 죽은 아비의 귀환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반복의 원인을 낳기 때문인 것이다.

3. 재구성된 텍스트의 분석과 의미 조명

다음 ①②③의 인용 글은 '덕수'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던 서사 텍스트이다.

①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열엿샛날이구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능교? 알 턱이 없을 끼요. 오늘이 우리 어무이 죽은 날이요. 사변 나던 해 내가 일곱 살 묵었을 때이께네. 벌써 삼십오년 됐구마. 의외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사내 쪽이었다.…(중략)… (이창동, 「친기(親忌」, 73쪽.)

②병들어 기동도 못하는 사람 도라꾸 짐칸에 실어서 친정에 우째 쫓아보냈능기요? 어데 말 좀 해보소. 도축장에 소 실어 보내듯이 도라꾸 짐칸에 가마뙈기 깔아 그 위에 눕히고 삼복더위에 겨울 솜이불 덮어가 떠나보냈지러요. 나는 안죽도 기억이 생생하구마. 경주 외갓집까지 도라꾸 카고 가는데 길가에 아카시아 나뭇가지가 철썩철썩 가시 회초리맨쿠로 때리대고……우리 어무이 그 두꺼운 이불 덮고도 덜덜 떨면서, 덕수야, 와 이리 춥노……덕수야, 와 이리 춥노, 와 이리 춥노, 내 눈까리에 흙 둘어가기 전까지는 못 잊어뿔 기구마. 아이고오……불쌍한 우리 어무이…….

그는 허물어지듯 머리를 땅에 처벅더니 마침내 덧에 치인 짐승처럼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꺼억꺼억 내질렀다.(이창동, 「친기(親忌」,

74쪽)

③참 꼴 좋구마. 우리 어무이 그러키 고생시키고 학대하고 쫓아내더이. 겨우 요러키 되었구마. 빨갱이짓에 미처 처자식까지 버리더이 겨우 요모양 요꼴이구마.(후략) (이창동, 「친기(親忌」, 77쪽)

위 텍스트에 의하면 '덕수'는 7살 때 아버지에 의해 모친과 함께 버림받은 고아이다. 더불어 그런 아버지는 빨갱이 짓에 미쳐 처자식까지 버렸다. 이 같은 '덕수' 진술은 시종일관 직접화법으로 증언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전략)다락방에 누운 채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의 노랫소리와 어지러운 발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내 가슴은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잇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일 거라고 되네이곤 했었다.(이창동, 「친기(親忌」, 79쪽).

반면 위 인용 ④는 서술자 '나'의 아버지에 대한 서사 텍스트이다. 이는 '나'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다.

⑤**나는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틀림없어요.** 원래 아버진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과 아주 막역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함께 좌익인가 뭔가 쉽게 말하면 빨갱이짓을 **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빨갱이짓 하신 거야 알 사람 다 아니까 이젠 숨길 것도 없죠. 뭐. 그런데 육이오가 나던 해 빨갱이란 빨갱이는 다 잡아들인다고 해서 두 분이 어딘가에 숨어서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언젠간 나도 들은 적이 있었다. 은신처에서 두 사람이 붙잡혔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외삼촌은 처형이 되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태어날지 어쩔지도 알 수 없었던 때의 일이었으므로 마치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구나 그 이야기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리라곤 한 번도 상상하지 못

했던 것이다.

누군가 경찰에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오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이창동, 「친기(親忌)」, 71쪽. 진한글씨 필자).

그런가하면 위 인용 ⑤는 '누나'와 '나'의 기억으로 엮어진 아버지에 대한 서사 텍스트이다.

'아버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인 이 같은 분석담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아버지 행위를 담론화 한다. 이 진술담론은 '~라고 해요' 형식의 자유간접화법으로 풍문이나 간접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측적 진술에 가깝다. ①②③의 덕수의 '증언'과 ④와⑤의 나와 누나의 '기억'과 '추측'을 중심으로 서사 텍스트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덕수의 증언	기억담론, 추측(나와 누나)
· 빨갱이짓에 미친 아버지로 인해 '덕수 모친'은 친정으로 쫓겨가 죽고, 당시 7살이던 '덕수'는 고아가 되었다. (공백)	· 당대 빨갱이 색출 작업 때 친구였던 '나'의 외삼촌과 '아버지'는 피신했다. · '덕수(배다른 형)'의 외가쪽에서의 밀고로 인해 '나(정우)'의 외삼촌이 처형되고 '아버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 이후 '나'의 외숙모는 죽은 아버지로 인해 얼굴도 모른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간다.

위에서 보듯,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서사 텍스트는 담론 텍스트와 견주어 극명한 차이가 난다. 덕수의 증언은 7살 이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서사텍스트의 중심에 '덕수' 외가쪽의 아버지에 대한 밀고가 원인이 되었다는 왜곡된 정보는 '덕수' 가족의 불행한 가족사를 생산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텍스트는 이들 인물들의 극화된 진술담론을 통해 재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창출된다. 특히 '누나'의 극화된 진술은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당대 사건의 본질을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생산한다. 이후 '누나'의 아버지 서사에 대한 진술담론은 3페이지에 걸쳐 계속된다. 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누나의 증언)
'아버지'는 대단한 빨갱이짓에 미치기보다 수몰된 고향의 보상금을 가지고 시작한 미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으로 줄줄이 도산하면서 거덜나게 되었고 급기야 쓰러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재혼한 어머니와 이후 태어난 자식들은 쓰러진 아버지가 하루 빨리 돌아가시길 염원하면서 살아왔다.

'누나'의 증언과 고백 형태의 극화된 진술은 아버지 김종만이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담론의 희생자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아버지가 진 빚이 자식들에게 탕감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들 가족서사의 비극이다.

이후 계속된 어머니와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폭행은 '나'를 비롯한 누나와 동생으로 하여금 '사생아 콤플렉스'를 낳게 하고 집을 나간 '동생'을 돌아오지 않게 하는 동인이 된다. 이로 볼 때 이들 가족의 애환은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이 물질적으로 왜곡된 데 있다. '종만(아버지)'은 '덕수 외가쪽'의 밀고로 자신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오해에 대해 진술한다.

이 두 텍스트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아버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너……너거 엄, 어마이가 미, 미, 밀고를 했느니 뭐니……하, 하는 소, 소리……귀담아 드, 듣지 마라. 사, 사, 사람이 너무 ……차, 착해서……**그, 그저 나, 날 사, 살리겠다는 요, 욕심 때문에**……사이비였다. (중략) 한 여자도 사, 사, 사, 사랑하지 모, 모, 못하면서……우, 우째 이, 이, 인민을 사,사,사, 사랑한다꼬 그……그거 버, 벌써 자, 자, 잘못된 기……라……(이창동, 「親忌」, 94~95쪽, 진한글씨 필자).

위 인용은 아버지(김종만)의 진술이다. 남편을 빨갱이로 밀고한 '덕수 모친'의 입장은 불온한 사상에 물든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빨갱이짓'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빚어진 잘못된 정보오류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오인에 사로잡혀 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통한하는 아버지의 고백인 동시에, 자식들로 하여금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스스로 과거를 청산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임종에 맞춰 아버지를 찾아온 배다른 형 '덕수'의 행보 역시 잔혹했던 과거청산에 대한 가족들의 의지를 표명한다.

> **"니, 니, 니가……더, 더, 덕수라 마, 말이가?"**
> "와요? 살아생전에 다시 못 들어볼 이름인 줄 알았능교?"
>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마주 보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저 턱을 덜덜 떨고만 있었고, 사내는 바위처럼 꿈쩍도 않는 자세로 아버지에게 시선을 박고 있었다.(후략)(이창동, 「친기(親忌」, 74쪽.)
> **어려서 헤어져 몇 십년 만에 처음 찾은 아버지를 향해 '덕수'는 복받치는 설움을 내뱉는다.**
> (전략)"우리 어무이가 어째 죽었는데. 얼매나 원통하게 죽었는데. 천애고아나 다름없는 날 받아 키워준 **우리 외할무이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구마. 너그 어무이 죽은 거는 너그 아부지 때문이다. 너그 아부지 빨갱이에 미쳐가 너그 어무이 죽인 기다." 사내는 술기운과 흥분으로 번들대는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핏발이 선 때문일까, 그 눈길은 날카롭다기보다 흡사 불붙는 듯했다.**
> "참 꼴 좋구마. 우리 어무이 그러키 고생시키고 학대하고 쫓아내더이, 겨우 요러키 되었구마. 빨갱이짓에 미쳐가 처자식까지 버리더이 겨우 요모양 요꼴이구마.(후략) (이창동, 「친기(親忌」, 75~76쪽, 진한글씨 필자).

'덕수'의 극화된 진술담론은 그가 아버지를 어느 정도 증오하고 열망

하였는지에 대해 알게 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이런 극화된 진술담론 역시 자식들과 죽은 전처에 대한 고백적 효과를 표면화한다. 이러한 담론 텍스트를 중심으로 볼 때, '덕수'의 기억에 서사화된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원한'어린 통한이 물질화되어 극화되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 '덕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로 물질화된 셈이다. 때문에 '천애고아'나 다름없었다고 진술하는 '덕수'의 진술담론은 아버지에 대한 열망을 은연중에 시사한다. '덕수'가 대면한 아버지는 한 줌 몸도 가누기 힘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 증오의 대상도 열망의 대상도 이미 아니다. 지금껏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존재했던 것은 물질화된 아버지의 힘이었다. 어떤 대상이 의미를 갖는 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의미로 물질화되어 있을 때 만이다. '덕수'에게 아버지는 자신과 자신 생모의 삶을 훼손한 증오의 대상이자 동시에 열망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것은 '덕수'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게하고 살게하는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소지」는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는 '시누이'의 제의담론을 통해 가족서사텍스트의 의미를 돌아본다.

「소지」에서 큰아들 '성국'은 아버지의 사상 문제로 인해 사관학교에 낙방하자 스스로 아버지를 거세한다. 얼굴도 모르는 추상적인 아버지로 인해 '성국'은 평생 거세당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반면 동생 '성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버지를 스스로 죽이는 형을 증오한다. '성국'은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고 아버지를 스스로 죽이는 부정의식을 통해 새로운 주체로 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작은 아들 '성호'는 '죽은 아비'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동성애적 환상을 싹 틔운다. '성국'은 부친 살해 욕망을 가시화함으로써 상징적 동일시에 편입한다.[27]. 다시 말해 '성국'은 사회적

27) 상징적 동일시(symbolic identification)란 주체가 상징적 질서인 큰 타자 속의 어떤 기표적인 특질과 동일시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함을 뜻한다. 라캉의 케보이(Che Vuoi)는 주체가 상징계에 떠도는 다양한 기표들 중 어떤 하나와 소급된 동일성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이때 기표는 떠도는 기표들과 매듭을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장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이 보여지고 관찰되

인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다. 그런가하면 '성호'는 죽은 아버지와의 동일화를 통해서만이 자신이 주체로 정립될 수 있다는 반성적 자각을 통해 새로운 주체로 정립될 것을 염원한다.

「소지」를 살펴보면 '성호'의 방을 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관은 어머니로 하여금 '삼십여 년 전' 소환된 '그녀의 남편(성국아버지)'를 환기하게 함으로써 진정 "자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던 가를 알"(이창동, 「소지」, 99쪽) 게 한다. 그것은 곧 '불순한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다름 아니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성호'가 보관한 상자를 태운다. 그러면서 불속에서 타들어가는 '글자'들이 남편이나 아들의 본질과 무관한 추상적 사물임을 비로소 인식한다. 또한 '그녀'는 '시누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편과의 묵은 관계를 청산하고자 결심한다.

이 같은 서사텍스트를 돌아보면서 '그녀'는 정작 자신이 그런 담론의 피의자였음을 스스로 인식한다. '그녀'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행불된 남편이 아니라 유령화 된 아비가 발휘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죽은 아버지는 살아 있는 아버지보다 자식들을 훨씬 강하게 옥죄는 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아비에 대한 소급적용은 '그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 전체를 신경증적 증상으로 일관하게 했고 그것이 증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에 '시누이'는 이러한 가족증후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죽음(시누이 오라버니)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위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에 이른다. 또한 죽은 아비와의 관계청산을 통해서만이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주체로 정립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아비에 의한 소급효과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아비는 여전히 죽은 아비로써 어느날 불현듯 이들 삶에 균열을 가할 것이다. 때문에 죽은 아비는 늘 죽은 아비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게 하는 지점과 동일시(Idealich)함으로써 승인을 받는다. 반면, 상상적 동일시(imaginary identification))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Ich-Ideal)와 동일화한다.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oct of Ideology,* Verso trans(1989), prined and bound in Great by Bookmarque Ltd. Croydon, pp.95~119.

의미에서 「소지」는 역사적 과거로서 청산되지 않은 아비 죽음은 역사반복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영원히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아비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날 문득 자신들 앞에 홀연히 나타난 '죽은 아버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비 살해'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죽은 아버지가 삶에 늘 내재해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 같은 유령화된 '아버지의 귀환'은 왜곡된 역사 청산에 대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반복된 역사의 귀결점이나 발전으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소지」와 「친기」에 드러나는 '아버지'를 둘러싼 잘못된 서사 텍스트가가족로맨스적 환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폭력의 대명사이자 불화의 원인으로 인식돼 왔던 셈이다.

이로 볼 때 「소지」에 비해 「친기」의 아버지에 의한 분석담론 효과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해 비해 「소지」는 유령화된 아버지가 발휘하는 물질적 환상으로 인해 여전히 죽은 아비의 위력이 작용한다. 이것은 죽은 아비가 발휘하는 마력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식들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 죄의식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대 사건의 주체인 아버지의 본질적 진술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변형된 텍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다른 서사 텍스트의 바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은 아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물질로써 존재한다. 채무 상환이 안 된 죽은 아비는 상징적 동일시의 원천인 동시에 자식들을 더욱 강하게 옥죄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친기」의 아버지는 죽은 아비에 비해 그 물질적 힘은 약화돼 있으나 왜곡된 가족서사를 바로 잡는 증언적 아버지로 존재함으로써 과거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서사를 텍스트의 관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담론의 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체 정립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4. 아버지의 죽음을 위한 제의 의식과 속죄

앞 절의 내용은 「소지」 「친기」의 가족구성원들을 옥죈 것은 아비 부재나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표상되는 잘못된 가족서사텍스트의 다름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그것은 곧 가족구성원들 모두를 적대의식과 불신으로 일관하게 하였다.

> 더 올라래이. 높이높이 올라래이.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렇게 되되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에서 당제(堂祭)를 할 때는 이렇게 종이를 태워 올렸다. 죽은 혼백의 명복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 종이가 자르 살라져서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다. 헛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형님이요. 언제까지 자식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미 살라능고.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두들겼다.(후략)이창동 「소지」, 128쪽).

위 인용은 「소지」의 '그녀'가 비로소 죽은 남편의 혼백을 위무하기 위해 제의를 올리는 장면이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진정한 관계청산은 유령화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는 제의를 올림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만이 자식은 상징적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진정한 주체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가족구성원들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버지의 살해는 필연적이다. 이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방해하는 원초적 아버지의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부성적이며 상징적 권위의 대명사로서의 부친 살해의 의미이다.[28] 자식들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제의 행위는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비로소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아버지 서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고 사물의 본질을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성국'의 부친살해 욕망은 '아버지의 법'으로 자신을 거세하는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부정임과 동시에 상징적 동일시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롯한 불행한 가족서사의 원천인 아버지 역시 이데올로기 담론의 희생양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제의형식은 단순이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주체에 대한 반성과 죄의식이 내포된 것이다.

> ①내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란 사람이 지금 당장 살아서 저 문을 열고 걸어들어온다해도 난 일 없어요. 난 사관학교 떨어지고, 대학 포기하고, 동사무소 서기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 손으로 아버지를 파묻었어요.
>
> ②형님이야말로 무엇이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군요. 사관학교를 위해,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군요.(이창동 「소지」, 124~125쪽)

위 인용은 아비 부재를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소지」의 한 대목이다. '그녀'의 큰아들 '성국'은 스스로 부친 살해를 감행한다. 아버지를 죽임으로써만이 그 자신이 주체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작은 아들 '성호'는 "이념과 사상으로 처자식까지 헌신짝처럼 버린"(「소지」. 122쪽.) 아버지와 동일성적 연대의식으로 이어져있다. '성호'에게 아버지란 언젠가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다

---

28) 동물 상태에서 문화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친 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2005, 505쪽 참조.

줄 희망이자 소망의식의 표상인 것이다. 이로 볼 때 '성국'은 아버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생아형 로맨스에 가까운 반면, '성호'는 언젠가 자신의 신분을 탈색해줄 아버지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있는 업둥이형 로맨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녀' 또한 업둥이형 로맨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행위는 언젠가 행불된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래서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오명을 벗고 그들 가족구성원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업둥이적 로맨스인 셈이다. 그녀의 이빨통증은 남편이 이미 부재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 '성호'가 아버지와 닮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녀'와 '시누이'는 남편이자 오라버니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텍스트의 말미에 고질병의 원천이던 이빨을 빼서 던져버리는 '그녀'의 행위는 지금껏 거세 콤플렉스에 매몰된 자신들에 대한 진정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청산이자 새로운 역사 창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친기」역시, 어느날 35년 만에 '아버지(김종만)'을 찾아온 '나'의 배다른 형 '덕수'는 이복 형제자매를 모아놓고 자신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자고 권유한다. '덕수'의 이런 행위는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소지」에서의 '시누이'와 같은 의도로 해석된다.

> "지, 지, 지방(紙榜)은 ……주, 준비가 아, 안 되었나?"
> 그가 마지막으로 가방 밑바닥에서 물건을 꺼내놓았다. 사진틀이었다. 그것이 수저가 놓여진 뒤쪽으로 세워지자 아버지는 잠깐 망연한 표정을 짓더니 곧 "햐, 햐, 향 피워라"하고 지시했다. 그는 제상 앞에 꿇어앉아 향을 피웠다. (중략)
> "저, 저, 절 해, 해라……너, 너, 너거들도……"
> 아버지가 누나와 내게 말했다. (중략)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마루문에 기대어 앉아 우리들에게 까다로운 제례의 순서를 하나하나 지시하고 있었다.
> "무, 무, 묵념 해, 해라." (이창동, 「친기(親忌)」, 86~87쪽)

위 인용은 「친기」에 나타나는 제의의식이다. 제의행위를 통해 임종을 앞둔 '덕수 아버지'는 피의자의 위치에서 분석담론의 주체가 됨으로써 왜곡된 가족서사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일조한다. '아버지'는 죽기 전 고해성사를 하듯 온 힘을 다해 자식들을 전처의 제사상에 무릎을 꿀리며 전두지휘한다. '아버지'는 비로소 오랫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조강지처였던 아내의 '제사'를 자식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배다른 형'의 이복동생인 '나'와 '누나'를 얼굴도 모르는 전처에게 절을 하게 한다. '아버지'의 이 같은 행위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게 한 가족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당대 주체들에 대한 반성과 속죄 행위의 일환이다. 더불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죽은 아내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으로 인해 아비 부재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자식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지」의 제의가 죽은 아비의 귀환을 위한 제의라면, 「친기」의 제의는 '덕수'의 모친을 죽음으로 이끈 이미 현재적 아버지의 반성과 속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외삼촌을 비롯하여 그 같은 왜곡된 가족서사의 중심에 있는 집단적 주체들의 속죄와 죄의식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웃끼리 서로 적이 되어 왜곡된 죽음에 이르게 한 당대의 집단적 주체의 표상이다.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정보는 오류화된 가족 서사텍스트의 바탕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당대 집단적 주체들로 하여금 사생아와 업둥이형 로맨스를 경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지금껏 '제의담론'의 피분석자였던 아버지는 이러한 제의과정을 통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에게 새로운 의미로 각인되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된 가족서사 의 원천은 다름 아닌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면서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오랜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가족로맨스적 환상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셈이다. 사상범으로 몰린 아버지의 행불과 미귀환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거세와 애증관계를 사생

아와 업둥이형 로맨스로 형상화한 것이 「소지」라면, 반신불구로 등장하지만 죽은 아버지와 진배없는 「親忌」의 아버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현실적 아버지를 부정하게 하는 사생아형 로맨스에 빠지게 한다. 이는 80년대라는 시대적 담론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친기」의 '배다른 형'이라는 의미는 거시적 의미에서 당대를 살아왔던 모든 이들을 표상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 같은 상징적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열망 또한 내재해 있다. 비로소 '배다른 형'인 '덕수'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를 진정한 '형님'으로 받아들인다. 아버지는 비로소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배다른 형'의 등에 업혀가는 '아버지'를 '누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리고, '엄마'는 침착하게 대처한다. '아버지'의 임종이나 다름없는 이 같은 모습은 아버지의 죽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부채를 청산하는 순간이다. 이로써 죽은 아버지는 산 아버지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아비 죽음에 대한 진정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또다른 폭력의 시발점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고 열망하는 가족로맨스의 시점이 되었음이다. 담론의 관찰자인 '나' 역시 허구한날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과 무능력을 이해할 수 없어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폭력에 무방비로 당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부정과 연민 그리고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아버지나 진배없는 비물질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덕수'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분석담론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각인되는 순간인 것이다.

>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왜 그토록 무서운 표정으로 어금니를 물고 몸을 떨며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미국 놈들'을

> 욕하고 이승만을 욕하고 박정희를 욕했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재봉틀을 돌리며 힘겹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어머니의 찌든 모습과 우리 삼남매까지 그는 참을 수 없어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활에 무능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기보다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듯 생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우리는 남의 집 단칸 셋방을 무수히 옮겨다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방을 구하고 이삿짐을 부리는 데 신경을 써본 일이 없었다. 이사하지 전날 슬그머니 집을 비웠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찾는지 새로 옮긴 방에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이창동, 「친기(親忌)」, 77쪽)

위 인용은 지금껏 관찰자에 머물러 있던 '나'가 아버지와 살면서 한 번도 반영적 관점에서 돌아본 적 없던 아버지에 대한 고백적 담론이다.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대면해 왔던 '나' 역시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분노와 방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증오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나' 역시 전술과 같이 '아버지의 노랫소리와 어지러운 발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고 염원했다. 여기서 '나'나 '덕수'의 무의식에는 일종의 부친 살해의식과 그런 살해의식에 대한 죄의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러한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또다른 주체로 정립하고자 하는 염원의식이 반영돼 있던 셈이다.

이는 나아가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을 반복해온 시대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동일성적 대상자로서의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 여섯 살 이전에 아버지와 헤어진 '배다른 형'에게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이미지화된 아버지의 얼굴이 실재라고 믿어왔던 것이다.[29] 엄밀히 말해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아왔고

---

29) 우리의 많은 기억들은 다 조작, 즉 사후적인 것이다. 예컨대, 디킨스의 「위대한 위산」에서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없는 '핍'은 아버지의 묘비로부터 단호한 아

그런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배다른 형'의 무의식에는 '사생아 콤플렉스'가 내재돼 있다. 그렇게 배다른 형의 머릿속에 물질화되어 있던 아버지의 실제는 자식들에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껏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오류화 된 재구성물임을 인식한다. 그런 기억의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는 그때까지 그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겉모습으로 봐서는 빚쟁이는 아닌 것 같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까부터 커다란 검은색 비닐 가방을 끼고 앉았는데, 나는 문득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앉은 그의 모습이 왠지 몹시 낯익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
> 아버지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때 낀 이불을 감고 내던져지듯 누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나간 당신의 생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밤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술에 만취해서 세상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든 모습과 너무 흡사했고,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시시각각 죽은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육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평스런 얼굴이었다.(이창동, 「친기(親忌)」, 71쪽).

「친기」에 나타나는 가족로맨스의 본질은 엄밀히 말해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분히 프로이트의 원시부족의 아버지를 연상하게 한다, 그것은 나아가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살해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상징되는 거세콤플렉스는 '아버지'로 하여금 폭력으로 표출하게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나(정우)'를 비롯한 집나간 '동생' '누나' 그리고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희생자가 된 셈이다. 또 '아버지' 역시 거세 콤플렉스로 표상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일차적 희생자가 되는 셈인데, 그런 아버지의 이면에는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열망, 즉 집단로맨스적 환상이 내재돼

버지의 이미지를 환유적으로 창조해낸다. 이 같은 환유적 아버지의 이미지는 근원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있었던 셈이다.

5.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이창동의 「소지」와 「친기」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지」는 어느날 불현듯 가족들의 삶의 균열을 깨뜨리는 죽은 아버지의 귀환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각인하고 당대 사건의 본질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한다. 「소지」는 사상문제로 행불된 남편으로 인해 폭도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신경증자로 전락한 '그녀'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로 인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성국'과 '성호', 경찰인 남편으로 인해 이들 가족을 불행하게 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신경증자가 된 '시누이' 등의 관점을 통해 각인된 죽은 아비의 위력을 표면화한다. 여기서 '시누이'와 '그녀'는 분석자의 위치에서 '제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성국'과 '성호'로 하여금 죽은 아비와 관계를 청산하는 반영적 서술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제의의식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죄의식과 연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주체 정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반면 「친기」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극화된 서술방식을 통해 아버지와의 갈등과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자 한다. 모친 제삿날 35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덕수'의 분석은 사건의 주체인 아버지를 비롯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증언과 고백의 극화된 진술로 이끈다. 아버지를 찾아온 배다른 형 '덕수'의 행보 역시 잔혹했던 과거청산에 대한 가족들의 의지를 표명한다. 이는 당대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 관점에서 조응하는 기회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오해로 빚어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가족서사의 공백이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종합하면 「소지」와 「친기」에 드러나는 '아버지'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

가 가족로맨스적 환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폭력의 대명사이자 불화의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 역시 희생과 연민의 주체였음을 인식한다. 「소지」는 유령화된 아버지의 귀환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된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 더불어 새로운 가족서사의 시발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아버지와의 화해는 진정한 아비 죽음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친기」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산 현재적 아버지의 고백적 담론을 통해 아버지로 비롯되는 가족서사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화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고백은 이데올로기적 오인에 사로잡혀 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통한하는 것이며,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과의 청산을 통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소지」에 비해 「친기」의 아버지에 의한 분석담론 효과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해 비해 「소지」는 유령화된 아버지가 발휘하는 물질적 환상으로 인해 여전히 죽은 아비의 위력이 작용한다. 이것은 죽은 아비가 발휘하는 마력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식들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 죄의식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대 사건의 주체인 아버지의 본질적 진술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변형된 텍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다른 서사 텍스트의 바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은 아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물질로써 존재한다. 채무 상환이 안 된 죽은 아비는 상징적 동일시의 원천인 동시에 자식들을 더욱 강하게 옥죄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친기」의 아버지는 죽은 아비에 비해 그 물질적 힘은 약화돼 있으나 왜곡된 가족서사를 바로 잡는 증언적 아버지로 존재함으로써 과거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서사를 텍스트의 관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담론의 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체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이창동의 소설들은 아버지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에 연유된 사람들을 분석자와 피분석자의 위치에 놓고 당대 사건을 객관적 관점에서 증언하고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발점을 형성한다.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으로 인해 당대 사건에 억울하게 연유돼 피폐한 삶을 살게 한 가족 서사 텍스트의 오류를 바로 잡고 새로운 주체로 정립할 것을 표명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창동, 『소지』, 문학과 지성사, 2010. 재판

2. 논저

강승묵, 「영화의 영상 재현을 통한 역사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형술, 「'영화로 읽는 세상' 판타지는 어떻게 일상에 스며드는가 - 이창동의 영화 『오아시스』」, 『관점21』13, 게릴라, 2002.

박영주 · 최정기 · 정호기, 「1960~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민주주의와 인권」14,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4, 77쪽.

박찬부, 『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198~199쪽.

서인숙, 「이창동 영화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 한국콘텐츠학회. 2013.

신두원, 「1980년대 문학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심은진, 「영화와 문학 ; 이미지의 시간성: 바르트와 들뢰즈의 이미지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창동의 『박하사탕』」, 『불어문화권연구』14,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2004.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80년대 노동문학의 전개과정」, 『원우론집』17, 연대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90.

이현승 · 송정아, 「이창동 작가론 : 윤리를 창조하는 '반복' 으로서의 영화 만들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 한국콘텐츠학회, 2012.

이희승, 「80년대 민주화운동 소재 영화의 민족주의와 탈식민적 욕망」, 『정

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08, 163~164쪽. 참조.

주진숙, 「한국현대사회에 대한 기획으로서 이창동의 영화들」, 『영상예술학회』11권, 영상예술연구, 2007, 105쪽.

Julia Kristeva,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유복렬 옮김, 푸른숲, 2002.

Marthe Robert, 『소설의 기원, 기원의 소설』, 김치수・이윤옥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9.

Sigmund Freud(1976b),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379쪽.

_____,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황보석 옮,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_____, 『꼬마 한스와 도라』, 김재혁・권세훈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193~199쪽.

_____,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옮김, 열리책들, 1997;2003. [재간].

_____, 『예술, 문학, 정신분석학』,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_____, 『늑대인간』,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1997;2003. [재간].

Slavoj Žižek,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유재희 옮김, 시각과 언어, 1995.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 2005.

최병학, 「이창동 영화를 중심으로 본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연구』2, 한국교양교육학회. 2008.

최지호, 「이창동 작품의 서사학적 연구-소설과 영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솔논단』15, 도설어문학회, 2001, 88쪽.

허아름, 「이창동 소설 연구 : 리얼리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Slavoj Žižek,(1989), The Sublime Objeoct of Ideology, Verso trans,

prined and bound in Great by Bookmarque Ltd. Croydon, 2008, p.60, pp.95~119.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ale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Alan Sherida. trans, 1978, New York: Norton. Lacan, p.20.

<Abstract>

Study on Family Analytic Discourse in the Novels of Lee Chang-dong
- Focusing 「Soji」 and 「Chingi」

Choi, Young-ja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find the family narrative discourse in the novels, 「Soji(paper burning)」 and 「Chingi(a sacrifice on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a parent)」 of Lee Chang Dong. In two works are the core of the family spaces family narrative text of led to the cause of the symptoms, the subject of discourse father. In 「Soji」, the imprinted poser of a dead father surfaces by viewpoints of 'she', who was sexually assaulted by riots due to her missing husband because of a thought problem and became a neurotic, 'Seong Guk' and 'Seong Ho', who were subject to observation and punishment because of their faceless father, and 'sister-in-law', who was overcome with guilt in making this family unfortunate by her husband as a police officer and became a neurotic. In this novel, as 'sister-in-law' and 'she' become the subject of 'rite' in the position of an analyst, they help 'Seong Guk' and 'Seong Ho' bring a reflectively family analytic discourse for en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ir dead father. Thus, a truly rite discourse admitting the father's death suggests the direction to overcome the guilt and the pity of all family members and to establish a new subject. On the other hand, in "Chingi" is reconciled by filling in the gaps of the family narrative that comes to the Father

through the confessional discourse of the current father ever bought a life torn due to the distorted ideology, and shows the process of healing. The analytic statement of the son 'Deok Su' coming to his missing 'father' after 35 years from the date of his mother's sacrifice brings the father, who is a subject of all ev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into dramatized discourse with his statements and confession. Confession of the father is to keep the home through a failed one caught up in the ideological mistaken, it allows the children can be seen as a means to be led out of guilt over the liquidation of yourself. Thus the two works form the starting point for configuring a new text by the testimony ideological discourse than it mean that the people of reason itself derived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s the father of contemporary events placed in the position of analyst and blood analysts to confess.

Key Words : analyst, dead father, dying, return, rites, confession, family narrative

▌논문접수 : 2015년 3월 18일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